

기 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01차 회기

(2011. 3. 14. ~ 4. 1.)

견해(Views)

진정사건번호 1642/2007 - 1741/2007

진 정 인 : 정민규 등
(대리인 : 변호사 앙드레 카르보노)

피 해 자 : 진정인

당 사 국 : 대한민국

진 정 일 : 2007. 9. 21. 및 같은 해 11. 6.(최초 제출일)

참 고 문 서 : 2007. 12. 7.자로 당사국에 전달된 특별보고관의 규정 제 97호 결정(서면으로 발행되지 않음)

견해채택일 : 2011. 3. 24.

주 제 : 양심적 병역거부

본 안 쟁 점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절 차 쟁 점 :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

규 약 조 항 : 제18조 제1항

선택의정서 조항 : 제5조 제2항 (b)호

2011. 3. 24.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진정사건번호 1642/2007 - 1741/2007에 관하여 선택의정서 제5조 제 4항에 따른 위원회의 견해로 별첨 문서를 채택한다.

별 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제101차 회기)

다음 진정과 관련된

진정사건번호 1642/2007 - 1741/2007

진 정 인 : 정민규 등
(대리인 : 변호사 앙드레 카르보노)
피 해 자 : 진정인들
당 사 국 : 대한민국
진 정 일 : 2007. 9. 21. 및 같은 해 11. 6.(최초 제출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1. 3. 24.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정민규 등을 대리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사건번호 1642/2007 - 1741/2007에 관한 그 심리를 종결하면서,

동 진정의 진정인들 및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이용가능한 모든 서면 정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견해

1.1 100명의 진정인들은¹⁾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²⁾ 앙드레 카르보노 변호사가 진정인들을 대리하고 있다.

1.2. 2011. 3. 24.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절차규정 중 규정 제94호 제2항에 따라, 그 실질상 사실적·법적 유사성에 비추어 결정할 100건의 진정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사실

2.1. 100명의 진정인 모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위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04. 7. 15.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4. 8. 26.에, 각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대에 복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진정인들은 아무도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이 문제에 관하여 중국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항소도 전혀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1) 진정인 명단 및 관련 진정사건번호의 목록은 이 견해의 끝부분에 첨부되어 있다.
2) 당해 선택의정서는 대한민국에서 1990. 4. 10.에 발효되었다.

2.2 그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는 특히 다음과 같다:

“헌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게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이고, 그러므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요청하는 권리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지 아니한다. 헌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의 절대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그러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2.3 대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7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집총거부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추가적으로 매달 50~70명이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된다.

정민규 권

2.4 2006. 12. 12. 정민규는 당사국의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그는 대체복무 이행에는 동의하였다. 2007.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병역법 위반을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설명하고,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심리를 받는 동안 그는 당사국 정부가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할 때까지 판결을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그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형기를 마쳤고, 그가 수사 및 수감으로 보낸 2년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구회성 권

2.5 2005. 12. 12. 구회성은 군복무를 위해 춘천의 군부대로 입영을 명하는 병무청의 입영 통지를 받았다. 구회성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정해진 3일 기간 내의 입영을 거부하였다. 2006. 5. 11. 인천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연진모 권

2.6 일자불상경, 연진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연락을 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포함하여 요구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다. 법원 심리에서 그는 2주간의 의무군사교육을 면제받는다면 대

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판사에게 알렸다. 그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2006. 5. 26. 법원(명칭 불상)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일주 권

2.7 2005. 10. 31. 이일주는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신하였다. 그는 경찰과 검사에게 신문을 받고, 2006. 5. 16.부터 구금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병역면제의 정당한 이유에는 오직 건강상의 이유와 같은 설득력 있는 이유만 해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병역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일주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그러한 자유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 남아있는 한 보호되나 다른 보호되는 권리나 의무들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법원은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한될 수 있는 권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현역 복무를 대체할 방법이 없는 것도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6. 4. 26. 이일주는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인환 권

2.8 조인환은 2006. 9. 22.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그의 종교적 신념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보냈다. 그는 경찰에서 신문을 받았고 37일 동안 구금되었다. 2007. 1. 10. 전주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정락 권

2.9 김정락은 2006. 1.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병무청에 알리고 요구받은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는 창원지방법원 심리에는 불구속 상태로 참석하였지만 결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종욱 권

2.10 김종욱은 2006. 10.경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선언하였지만, 법원은 입영 통지를 받은 후 3일 안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비난하였다. 2007. 1. 17. 그는 수원지방법원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동현 권

2.11 2006. 9. 18. 신동현은 3일 안에 용현동에 있는 군부대에 입대하라는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군복무를 거부하였으나 병무청은 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는 체포되었고 2006. 11. 16.부터 구금되었다. 2006. 12. 28. 그는 인천지방법원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주관 권

2.12 유주관은 2006. 10. 18.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그는 2007.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재형 권

2.13 2006. 8. 29. 정재형은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2006. 10. 11. 그는 수원병무청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렸다. 그는 그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체포되었고 2006. 11. 13.부터 구금되었다. 2006. 12. 21.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허 욱 권

2.14 허욱은 2006. 4. 6.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병역거부를 통지하였다. 경찰 수사는 2006. 6. 9.에, 검찰 수사는 2006. 8. 30.에 각 시작되었다. 그는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구금되지는 않았다.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박종근 권

2.15 2006. 10. 1. 박종근은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병무청 사무소에 가서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2007. 4.경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2007. 5. 30. 인천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백운현 권

2.16 백운현은 2006. 9. 12. 입영 통지를 받은 후 종교적인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였다. 그는 수사를 받던 중인 2006. 10. 25.부터 구금되었다.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임정록 권

2.17 임정록은 2006. 8. 8.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재

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2007. 2. 1. 대구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신명기 권

2.18 신명기는 2006. 1. 27.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으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그는 후에 병무청에 가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006. 3.경에는 경찰에서, 2006. 5.경에는 검찰에서 각각 수사를 받은 후 그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2006. 6. 22. 의정부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차재하 권

2.19 2006. 10. 2. 차재하는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그의 종교단체에서 그의 지위를 확인해준 서면 및 교인등록증명서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는 조사를 받았으나 판사는 그를 재판 전에 구금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검사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2007. 3. 28.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박주현 권

2.20 박주현은 2006. 7. 3.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2006. 9.경 수사를 받았다. 재판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2006. 10. 20. 의정부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태웅 권

2.21 김태웅은 2006. 12. 26. 입영 통지를 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007. 6. 22. 대구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서 산 권

2.22 2006. 9. 22. 서산은 군대 입영을 통지받았다. 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그는 병무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2007. 1. 11. 창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조 호 권

2.23 조호는 2006. 8. 2.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006. 11. 23. 창원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김정훈 권

2.24 2006. 6. 8. 김정훈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경찰과 검찰에 적극 협력하였다. 법정에서 그는 자발적인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2006. 10. 25.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재현 권

2.25 이재현은 2007. 3. 18.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이를 거부하였다. 2007. 6. 27.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윤한글 권

2.26 2006. 8. 25. 윤한글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가서 그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알렸다. 그는 경찰로부터 신문을 받았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정환호 권

2.27 2006. 7. 31. 정환호는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심문을 받았고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2006. 11. 22.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도현 권

2.28 2006. 6. 20. 김도현은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다. 그는 이를 거부하였고 2006. 8. 18. 자신의 입장을 통지하였다. 법정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강욱 권

2.29 김강욱은 2006. 5. 11.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이를 거부하였다. 2006. 11. 8.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 현 권

2.30 김현은 2006. 12. 14.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병역에 신고하지 않아서 경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재판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7. 3. 20.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영원 권

2.31 이영원은 2006. 4. 4.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재판 전에 구금되어 재판 기간 동안 구금당하였다. 2006. 8. 31.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문태수 권

2.32 문태수는 2006. 5. 10.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입영을 거부하였고 2006. 6. 30. 병무청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는 체포되었고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2006. 10. 20.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정지현 권

2.33 정지현은 2006. 10. 24.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입영을 거부하였고 병무청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재판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7. 1. 30. 창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강두온 권

2.34 강두온은 2006. 10. 3.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다. 그는 집총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성열 권

2.35 강성열은 2006. 8. 28.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용대 권

2.36 김용대는 2006. 3. 14.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병무청에 연락을 하였다. 2006. 8. 8. 대전지방법원은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승엽 권

2.37 이승엽은 2006. 7. 12.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가서 그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하였다. 그는 두 차례 신문을 받고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서재원 권

2.38 서재원은 2006. 5. 4.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종을 거부하였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2006. 8.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최우진 권

2.39 최우진은 2006. 7. 28.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였다. 2006. 12. 7. 창원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황성진 권

2.40 황성진은 2006. 4. 21.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통지에 따르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체포·구금되었다. 2006. 9. 25. 부산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전성중 권

2.41 전성중은 2006. 10. 16.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입대를 거부하여 체포되었고 2006. 12. 4.부터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2007. 2. 7.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대진 권

2.42 김대진은 2006. 7. 6.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되기로 한 그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그는 체포되었고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은우 권

2.43 김은우는 2006. 6. 16.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이를 거부하였다. 재판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7.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임지훈 권

2.44 임지훈은 2006. 7. 11.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이를 거부하였다.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성호 권

2.45 이성호는 2006. 9. 21.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다. 입영 3일 전, 그는 병무청에 전화하여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것을 알렸다. 2007. 1. 12. 창원지방법원은 10분 만에 심리를 끝내고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신대준 권

2.46 신대준은 2005. 9. 23. 군복무 이행을 위해 소집되었다. 그는 경찰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집총을 거부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2006. 5. 18. 대구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박세웅 권

2.47 박세웅은 2006. 5. 16.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공인된 한의사로서, 그는 현역 군복무로부터 면제되었고 4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한 (공중보건소에서 근무하는)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는 이를 거부하였다. 2006.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권진무 권

2.48 권진무는 2006. 5. 8.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다. 그는 양심적 거부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의 종교적 신념들을 대체로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은 2006. 10. 26.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기준 권

2.49 김기준은 2006. 5. 26.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006. 11. 1.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영기 권

2.50 이영기는 2006. 9. 4.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서강혁 권

2.51 서강혁은 2006. 10. 12. 현역 군복무 영장을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전화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고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재판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7. 1. 18.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위중빈 권

2.52 위중빈은 2007. 4. 10.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통지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조사받았고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 2007. 6. 4.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오상용 권

2.53 오상용은 2006. 5. 10.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조현영 권

2.54 조현영은 2006. 8. 31.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다. 그는 징병 사무소에 전화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그는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구금되었다.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재성 권

2.55 이재성은 2006. 8. 21.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2007. 1. 5.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허범혁 권

2.56 허범혁은 2006. 9. 21.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그는 수사를 받고 체포되었으며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구금되었다.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강일 권

2.57 김강일은 2006. 6. 13.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그는 수사를 받고 체포되었으며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구금되었다.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6.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중훈 권

2.58 김중훈은 2006. 7. 5.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징병 사무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의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알렸다. 그는 수사를 받고 체포되었으며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구금되었다.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6. 11. 28.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정현우 권

2.59 정현우는 2006. 3. 22.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는 수사를 받고 체포되었으며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구금되었다.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6. 7. 11.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하준희 권

2.60 하준희는 2006. 8. 2.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는 수

사를 받고 체포되었으며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구금되었다.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강민구 권

2.61 강민구는 2006. 7. 27.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였고 병무청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알렸다. 그는 수사를 받고 체포되었으며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구금되었다.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6. 11. 15.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강일구 권

2.62 강일구는 2006. 11. 초순경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종교적인 이유로 경기병무청에 입영을 거부하였다. 재판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7.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곽상현 권

2.63 곽상현은 2006. 4. 30. 군복무 이행을 위해 소집되었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재판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최선희 권

2.64 최선희는 2006. 3. 31.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재판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6. 7. 19.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창호 권

2.65 이창호는 2006. 10. 10. 현역 군복무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그의 입장을 밝혔다. 2007. 4. 17. 대구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찬희 권

2.66 김찬희는 2006. 2. 4. 현역 군복무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는 수사를 받고 체포되었으며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구금되었다.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6. 7. 20.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강준석 권

2.67 강준석은 2006. 8. 23.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재판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6. 12. 22.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성희 권

2.68 이성희는 2006. 3. 13.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200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강민 권

2.69 이강민은 2006. 7. 27.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박슬용 권

2.70 박슬용은 2006. 3. 14. 군복무 영장을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밝혔다.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2006. 10. 10.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전두현 권

2.71 전두현은 2006. 7. 27.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소집을 거부하였다.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박찬욱 권

2.72 박찬욱은 2004. 4. 14. 군복무를 이행하라는 영장을 받았다. 그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함

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2006. 8. 30.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석승호 권

2.73 석승호는 2006. 6. 26. 군복무 영장을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밝혔다. 그는 체포되었고 재판받을 때까지 구금되었다. 2006. 10. 31.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남현일 권

2.74 남현일은 2006. 7. 28. 군대 입영 통지를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홍현수 권

2.75 홍현수는 2006. 4. 27. 군복무 영장을 받았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그는 체포되었고 재판받을 때까지 구금되었다. 2006. 10. 18.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윤희 권

2.76 이윤희는 2006. 11. 6. 군복무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2007. 4. 25.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남희 권

2.77 이남희는 2006. 7. 12. 군복무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였다. 2007. 1. 18.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주영국 권

2.78 주영국은 2006. 7. 22. 군복무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는 체포되었고 재판이 열릴 때까지 구금되었다. 2006. 12. 13.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진영 권

2.79 김진영은 2006. 5. 25. 군복무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였다.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박 혁 권

2.80 박혁은 2006. 3. 22. 군복무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는 체포되었고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6. 8. 29.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명재 권

2.81 김명재는 2006. 7. 22. 군복무 영장을 받았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였다. 2007.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윤수 권

2.82 김윤수는 2007. 4. 5. 군복무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2007. 7. 25.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윤지호 권

2.83 윤지호는 2007. 2. 16.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박진형 권

2.84 박진형은 2006. 10. 25.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박희환 권

2.85 박희환은 2006. 9. 22.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2007. 2. 7.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기욱 권

2.86 이기욱은 2006. 9. 15.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기업 권

2.87 김기업은 2006. 8. 23.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그는 모든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는 체포되었고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속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2007. 2. 21.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노승재 권

2.88 노승재는 2006. 7. 5.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그는 신문을 받은 후에 풀려났다.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보현 권

2.89 김보현은 2006. 10. 17.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그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2007. 2. 6. 창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승진 권

2.90 이승진은 2005. 12. 14.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재판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2006. 8. 10. 대구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희민 권

2.91 김희민은 2006. 12. 23.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재판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권숙진 권

2.92 권숙진은 2006. 5. 12.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재판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2006. 9. 15. 대구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한도희 권

2.93 한도희는 2006. 7. 4.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그는 체포되었고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2007. 1. 18. 대전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배대희 권

2.94 배대희는 2006. 7. 28.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그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강무명 권

2.95 강무명은 2006. 5. 10.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고 모든 관련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였다. 그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2006.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조은걸 권

2.96 조은걸은 2006. 5. 10.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고 모든 관련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였다. 그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2006.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박우영 권

2.97 박우영은 2006. 3. 28.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그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정종우 권

2.98 정종우는 2006. 5. 19.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고 모든 관련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였다. 그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2006. 8. 25. 부산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박창민 권

2.99 박창민은 2006. 8. 4.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박명웅 권

2.100 박명웅은 일자불상경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재판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2006.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최수현 권

2.101 최수현은 2007. 2.경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고 모든 관련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였다. 2007. 7. 11. 인천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원경 권

2.102 이원경은 일자불상경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007. 3. 8. 대전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김광유 권

2.103 김광유는 2006. 여름경 군대 입영 영장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고 모든 관련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였다. 그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금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2006.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진정

3.1 진정인들은 형사 기소 및 구금의 고통 하에서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수단이 당사국 내에 없다는 점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3.2 진정인들은 2006. 11. 3. 위원회에서 채택된 진정사건번호 1321/2004 및 1322/2004, 윤여범 ·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사건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견해를 인용한다. 이 견해에서 위원회는 현 진정사건들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당사국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4.1 2008. 11. 14. 답변서 제출을 통해서, 당사국은 윤여범 · 최명진 사건에서의 위원회의 견해³⁾를 언급하고 위원회가 당사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이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진정사건들의 본안에 관하여 답변한다.

4.2 당사국은 위원회의 종전 결정 중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의무복무제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당사국 중 의무복무제에 대한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종전 결정에서의 위원회의 논거에 대하여, 당사국은 대체복무를 도입한 국가인 독일과 대만의 법제도가 당사국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사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래로 분단된 채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 1945년 이래로 전쟁이 없었으며, 1990년에는 재통일이 이루어졌다.

4.3 대만은 1955년 대만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중국과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고, 1950. 6. 25.부터 휴전협정이 최종적으로 체결된 1953. 7.까지 3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남한에서 1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0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그 가족과 헤어졌다. 당사국은 가슴 아픈 전쟁의 역사야말로 당사국 정부가 그 국가정책 의제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점을 제시한다. 법적 측면에서, 당사국은 휴전협정이 당사국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대만과 같은 다른 국가들과 구별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휴전협정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전(終戰) 선언이나 불가침 및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협정과 같은 새로운 법체계에 의해 폐기되지 않고 있다. 당사국에 의하면, 당사국은 155마일에 걸쳐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환경이 독일이나 대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한 합정 간에는 1999. 6. 15.과 2002. 6. 19.에 발생한 다수의 충돌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양국 간 비교적 화해 상황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3) 전기 참조

점을 증명하고, 당사국이 방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구축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4.4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경우에, 그로 인해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이 수반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위원회의 논거에 대하여,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국가적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당사국은 대체복무제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당사국은 한반도의 70%가 산지이고, 이로 인해 게릴라전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지상 병력을 갖추는 데 큰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당사국의 군인 수는 약 117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의 58%에 불과한 약 68만 명이고,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15세부터 25세 사이의 남성 군인의 수가 상당히 감소해왔다. 이러한 추세는 장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징병 예외 사례의 수용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

4.5 당사국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종종 요구되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나 자신의 학업이나 직업상 경력의 중단과 같은 결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따라서 충분한 지상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제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 당사국은 만약 국민적 합의 없이 병역에 대한 예외 주장을 수용한다면, 병역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문으로 이어져 병역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약화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병력 확보가 방해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예외는 모든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군 병력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예외 인정 요구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다. 만약 당사국이 종교적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기초한 예외까지 수용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국을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의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병역 자원의 공급,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상호간 및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예외 인정의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4.6 “국가적 측면에서 양심적 신념과 그 표현에 대한 존중은 그 자체로 사회 내에서 응집되고 안정된 다원주의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위원회의 논거에 대하여, 당사국은 독특한 안보 상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병역 의무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행이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의견이다. 양심적 신념과 그 표현에 대한 존중은 제도의 이행만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이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2005. 7.과 2006. 9.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제 승인에 대하여 각각 72.3%와 60.5%의 반대의견이 나타났다. 당사국에 의하면,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민적 합의 없이 너무 일찍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보다 사회적 긴장을 강화할 수 있다.

4.7 당사국은 의무적 군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과 공

정성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제시한다. 당사국 군인 중 대다수는 어려운 환경 하에서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국가를 방어하는 그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에 직면한다. 실제로 최근 2002. 6. 19. 서해 연평도 인근의 남북한 해군 함정 간 충돌에서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므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불균형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에 앞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4.8 당사국은 1990. 4. 10. 당사국의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시에, 위원회가 자유권규약 제18조의 범위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위원회는 1993. 7. 30. 그 일반논평 제22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이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위원회의 입장을 공표했다. 당사국은 현 시점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유권규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상 요건조항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당사국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한다.

4.9 당사국은 2006. 4.부터 2007. 4.까지 국방부가 “민·관 합동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위원회는 장래 병력의 수급에 관한 전망, 병역거부자의 진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 외국의 관련 사례를 포함하여 병역법 개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⁴⁾ 민·관 합동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는 현재 2008. 8.부터 12.까지 여론의 동향을 추적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4.10 또한 2007. 9. 당사국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복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표했다. 당사국은 “여론에 대한 연구 결과와 관련 부처·기관의 입장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인정되는 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위원회에 통보한다. 결론적으로, 당사국은 여기서 제시된 논거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재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진정인들의 주장

5.1 2009. 2. 23.자 의견서에서, 진정인들은 당사국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진정인들은 위 답변이 윤여범·최명진의 진정사건 1321-1322/2004⁵⁾에서의 진정인들의 주장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을 지적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진정인들은 이번 사건에서도 제18조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

4) 당사국은 이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았다.

5) 윤여범·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진정사건번호 1321/2004 및 1322/2004, 2006. 11. 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진정사건⁶⁾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당사국의 답변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진정인들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5.2 국가안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승인하면 그것이 곤란해 질 수 있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해, 진정인들은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전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을 채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법들이 위 국가들의 국가안보를 약화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또 다른 예로 이스라엘은 1948년 이래로 대한민국이 지난 50년에 걸쳐 경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상자를 낳은 군사적 대치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5.3 나아가 진정인들은 현재 당사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매년 군복무를 위해 징집되는 인원의 2%라는 점을 다룬다. 진정인들은 이 수가 당사국의 국방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만큼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대에 복무하지 않고 감옥에 수감되는데, 그러므로 당사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향상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 진정인들은 주목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 불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로부터의 요구도 늘어날 것이라는 당사국의 우려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민간 복무제를 이행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불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신자 계층으로부터의 요청이 실제로 증가하였다는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5.4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기본적 자유는 투표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미국대법원의 1943년 판결을 인용하여 답변하였다.⁷⁾ 진정인들은 여론이 동 자유권규약이나 자국의 헌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해 사안에서 당사국은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자국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택하였다. 따라서 동 자유권규약을 포함하는 국내법이 그러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당사국의 법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진정인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기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진정인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다룬다. 당사국은 2005년과 2006년에 실시한 2번의 여론조사에서 각각 73.3% 및 60.5%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인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 민간 복무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한 2007년 9월 18일에, 국방부는 50.2%가 대체복무 도입을 찬성한다는 또 다른 여론조사를 언급하였다. 진정인들은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두 개의 다른 여론조사를 인

6) 상기 견해, 6.5절.

7) 미국 대법원,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et al. v. Barnette et al*, 319 U.S. 624, 639 (1943)

용한다.

5.5 진정인들은 그러한 모순이 기본적 권리는 투표를 이유로 좌우될 수 없으며, 당사국은 이러한 자유를 헌법 및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기로 선택하였음을 보여준다는 결론을 내린다. 당사국이 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을 당시에는 아직 위원회가 자유권규약 제18조의 적용범위를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로 확장시킨 일반논평 제22호를 공포하지 않았었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이후 그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ssion)의 회원국이 되었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2년 및 200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답변한다. 당사국은 위 결의안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진정인들은 자신들의 사건에서 제18조 제1항 위반이 이루어졌음을 심의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쟁점 및 위원회의 심리절차

심리적격 심사

6.1 진정에 포함된 청구를 심리하기 전에, 위원회는 그 절차규정 제93조에 따라 자유권규약 선택의 정서에 따른 심리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2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 (a)호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6.3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어떠한 항소도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각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 진정인들은 2004년 7월 15일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군대에 복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결정하였고,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이 문제에 관하여 종국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항소도 전혀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의 주장과 당사국에 의한 어떠한 반대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 (b)호에 정한 바에 따라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였다고 간주한다.

6.4 나아가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였다고 간주하고,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심리적격이 있다고 선언하며 본안 심사로 나아간다.

본안 심사

7.1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출된 이용가능한 모

는 정보에 비추어 이 사건 진정을 심리했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에 의무적 군복무에 대한 대체수단이 없고 그 결과 병역을 불이행하면 형사기소 및 구금에 이르게 되므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당사국이 종전의 진정들⁸⁾에 대한 답변으로 위원회에 제출했던 주장들, 특히 국가안보, 군대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 및 사안에 관한 국민적 합의 결여에 관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종전의 견해⁹⁾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이미 심사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위원회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7.3 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기술된 자유들의 기본적 특성은 규약 제4항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훼손될 수 없다는 일반논평 제22호를 상기한다. 비록 자유권규약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살상력의 사용이 수반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위원회는 그러한 권리가 제18조로부터 도출된다고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되어 있다. 만약 의무적 군복무가 개인의 종교 또는 신념과 조화될 수 없다면 어떤 개인이라도 그 의무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강제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원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군 복무에 대한 민간 대체수단의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대체복무는 군 관할지역 밖의 것이고 군의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 대체복무는 징벌적인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되어야 하고 인권 존중에 적합하여야 한다.

7.4 이 사건에서, 진정인들이 의무적 군복무를 위한 징집을 거부한 것은 진심으로 신봉하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고, 진정인들에 대한 이후의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는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간주한다. 무기의 사용을 금하는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자행되는, 의무적 군복무를 위한 징집거부에 대한 제재는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저촉된다.

8.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시된 사실들이, 각 진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을 보여준다고 결정한다.

9.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a)호에 따라,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그 범죄기록(criminal records)의 말소 및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자유권규약 위반을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조치의

8) 윤여범 ·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진정사건번호 1321/2004 및 1322/2004, 2006. 11. 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정의민 등 대(對) 대한민국, 진정사건 번호 1593-1603/2007, 2010. 4. 30.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9) 상기 참조

채택이 포함된다.

10.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위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했다는 점과 자유권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그 영토 내에 있거나 그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들에게 자유권규약 상 인정된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자유권규약 위반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견해를 실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 또한 당사국이 위원회의 견해를 공표할 것을 요청한다.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채택되었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 유엔총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공표될 것임]

부록 1

	진정사건번호	진정인		진정사건번호	진정인
1	1642/2007	정민규	31	1672/2007	강두온
2	1643/2007	구휘성	32	1673/2007	강성열
3	1644/2007	연진모	33	1674/2007	김용대
4	1645/2007	이일주	34	1675/2007	이승엽
5	1646/2007	조인환	35	1676/2007	서재원
6	1647/2007	김정락	36	1677/2007	최우진
7	1648/2007	김종욱	37	1678/2007	황성진
8	1649/2007	신동현	38	1679/2007	전성중
9	1650/2007	유주관	39	1680/2007	김대진
10	1651/2007	정재형	40	1681/2007	김은우
11	1652/2007	허 욱	41	1682/2007	임지훈
12	1653/2007	박종근	42	1683/2007	이성호
13	1654/2007	백운현	43	1684/2007	신대준
14	1655/2007	임정록	44	1685/2007	박세웅
15	1656/2007	신명기	45	1686/2007	권진무
16	1657/2007	차재하	46	1687/2007	김기준
17	1658/2007	박주현	47	1688/2007	이영기
18	1659/2007	김태웅	48	1689/2007	서강혁
19	1660/2007	서 산	49	1690/2007	위종빈
20	1661/2007	조 호	50	1691/2007	오상용
21	1662/2007	김정훈	51	1692/2007	조현영
22	1663/2007	이재현	52	1693/2007	이재성
23	1664/2007	윤한글	53	1694/2007	허범혁

24	1665/2007	정 환 호	54	1695/2007	김 강 일
25	1666/2007	김 도 현	55	1696/2007	김 중 훈
26	1667/2007	김 강 욱	56	1697/2007	정 현 우
27	1668/2007	김 현	57	1698/2007	하 준 희
28	1669/2007	이 영 원	58	1699/2007	강 민 구
29	1670/2007	문 태 수	59	1700/2007	장 일 구
30	1671/2007	정 지 현	60	1701/2007	곽 상 현

	진정사건번호	진정인		진정사건번호	진정인
61	1702/2007	최선흥	81	1722/2007	박진형
62	1703/2007	이창효	82	1723/2007	박희환
63	1704/2007	김찬희	83	1724/2007	이기욱
64	1705/2007	강준석	84	1725/2007	김기업
65	1706/2007	이성희	85	1726/2007	노승재
66	1707/2007	이강민	86	1727/2007	김보현
67	1708/2007	박슬용	87	1728/2007	이승진
68	1709/2007	전두현	88	1729/2007	김희민
69	1710/2007	박찬욱	89	1730/2007	권숙진
70	1711/2007	석승호	90	1731/2007	한도희
71	1712/2007	남현일	91	1732/2007	배대희
72	1713/2007	홍현수	92	1733/2007	강무명
73	1714/2007	이용희	93	1734/2007	조은걸
74	1715/2007	이남희	94	1735/2007	박우영
75	1716/2007	주영국	95	1736/2007	정종우
76	1717/2007	김진영	96	1737/2007	박창민
77	1718/2007	박 혁	97	1738/2007	박명웅
78	1719/2007	김명재	98	1739/2007	최수현
79	1720/2007	김윤수	99	1740/2007	이원경
80	1721/2007	윤지호	100	1741/2007	김광유

첨부

유지 이와사와, 제럴드 L. 노이만, 마이클 오폐래허티 위원의 별개의견(동의하는)

우리는 당사국에 대한 유사 사건에서 이전의 결정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각 진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인정한 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건에서 위원회의 다수의견은 이전의 결정례와 다른 이유를 채택하였다. 우리는 위원회가 이전과 같은 이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위원회의 견해 중

7.2항부터 7.4항까지는 다음 항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에 의무적 군복무에 대한 대체수단이 없고 그 결과로 그들이 병역을 불이행하면 형사기소와 구금에 이른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한 유사한 사건들에서, 진정인들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선고는 그들이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능력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3항의 의미 내에서 문제된 제한이 필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한 종전의 결정례를 상기한다.¹⁾

7.3.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당사국이 종전의 진정들²⁾에 대한 답변으로 위원회에 제출했던 주장들, 특히 국가안보, 군대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 및 사안에 관한 국민적 합의 결여에 관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종전의 견해³⁾에서 위원회가 이러한 논거들을 이미 심사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위원회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7.4. 위원회는, 의무적 군복무를 위해 징집되는 것에 대한 진정인들의 거부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진정하게 유지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의 직접적 표현이었다는 점과 진정인들에 대한 그 후의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는 그들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그들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능력에 대한 제한에 해당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된 제한이 필요했다는 점을 자유권규약 제18조 제3항의 의미 내에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서명] : 유지 이와사와

[서명] : 제럴드 L. 노이만

[서명] : 마이클 오피래허티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채택되었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 유엔총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공표될 것임]

1) 윤여범 · 최명진 대(對) 대한민국, 진정사건번호 1321/2004 및 1322/2004, 2006. 11. 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정의민 등 대(對) 대한민국, 진정사건번호 1593-1603/2010, 2010. 3. 2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2) 상기 참조

3) 상기 참조

United Nations

CCPR/C/101/D/1642-1741/2007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Distr.: Restricted*
5 April 2011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mmittee
One hundredth and first session
14 March – 1 April 2011**Views****Communications No. 1642-1741/2007**

<u>Submitted by:</u>	Min-Kyu Jeong et al (represented by counsel, André Carbonneau)
<u>Alleged victims:</u>	The authors
<u>State party:</u>	The Republic of Korea
<u>Date of communication:</u>	21 September and 6 November 2007 (initial submissions)
<u>Document references:</u>	Special Rapporteur's rule 97 decision, transmitted to the State party on 7 December 2007 (not issued in document form)
<u>Date of adoption of Views:</u>	24 March 2011

* Made public by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CCPR/C/101/D/1642-1741/2007

<i>Subject matter:</i>	Conscientious objection
<i>Substantive issues:</i>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Procedural issues:</i>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i>Articles of the Covenant:</i>	Article 18 (1)
<i>Articles of the Optional Protocol:</i>	Article 5, paragraph 2 (b)

On 24 March 2011, the Human Rights Committee adopted the annexed text as the Committee's Views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in respect of communications No. 1642-1741/2007.

[Annex]

Annex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e hundredth and first session)**

Concerning

Communications No. 1642-1741/2007^{}**

Submitted by: Min-Kyu Jeong et al (represented by counsel,
André Carbonnier)
Alleged victim: The authors
State party: The Republic of Korea
Date of communication: 21 September and 6 November 2007 (initial
submissions)

The Human Rights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2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Meeting on 24 March 2011,

Having concluded its consideration of communications No. 1642-1741/2007,
submitted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behalf of Messrs. Min-Kyu Jeong et al.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aving taken into account all written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the authors
of the communication, and the State party,

Adopts the following:

Views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1.1 The authors of the communications are 100 persons¹, all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y claim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of their rights
under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².
The authors are represented by counsel, Mr. André Carbonnier.

^{**} The following members of the Committee participated in the examination of the present
communication: Mr. Lazhari Bouzid, Ms. Christine Chanet, Mr. Ahmad Amin Fahalla, Mr. Cornelis
Flinterman, Mr. Yuji Iwasawa, Ms. Helen Keller, Ms. Iulia Motoc, Mr. Gerald L. Neuman,
Mr. Michael O'Flaherty, Mr. Rafael Rivas Posada, Sir Nigel Rodley, Mr. Fabian Omar Salvioli,
Mr. Krister Thelin and Ms. Margo Waterval.

An individual opinion signed by Committee members Mr. Yuji Iwasawa, Mr. Gerald L. Neuman
and Mr. Michael O'Flaherty is appended to the text of the present Views.

¹ The list of the authors and their respective communication number is annexed at the end of the
Views.

² The Optional Protocol entered into force for the Republic of Korea on 10 April 1990.

CCPR/C/101/D/1642-1741/2007

1.2 On 24 March 2011, pursuant to Rule 94, paragraph 2, of the Committee's Rules of Procedure, the Committee decided to join the 100 communications for decision in view of their substantial factual and legal similarity.

The facts as presented by the authors

2.1 All 100 authors are Jehovah's Witnesses, who have been sentenced to one and a half years of imprisonment for refusing to be drafted for military service, based on their religious belief. None of the authors appealed their cases to higher courts as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15 July 2004,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26 August 2004, decided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must serve in the army or face prison terms. Since the highest courts of Korea made a final decision on this issue, any further appeal would be totally ineffective.

2.2 In its ruling,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ed a constitutional challenge to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Act on the grounds of incompatibility with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conscience protect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urt reasoned, *inter alia*:

"the freedom of conscience as expressed in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grant an individual the right to refuse military service. Freedom of conscience is merely a right to make a request to the State to consider and protect, if possible, an individual's conscience, and therefore is not a right that allows for the refusal of one's military service duties for reasons of conscience nor does it allow one to demand an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 to replace the performance of a legal duty. Therefore the right to request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 cannot be deduced from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 Constitution makes no normative expression that grants freedom of expression a position of absolute superiority in relation to military service duty.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can be recognized as a valid right if and only if the Constitution itself expressly provides for such a right".

2.3 Following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and Constitutional courts, more than 700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ing sentenced and imprisoned for one and a half years for refusing to bear arms. An additional 50 to 70 persons are convicted and imprisoned each month.

Mr. Min-Kyu Jeong's case

2.4 On 12 December 2006, Mr. Jeong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from the State party's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e refused to perform military duty on account of his personal religious convictions. He agreed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On 25 April 2007, the Gunsan Branch of Jeonju District Court rejected his claim and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of imprisonment in viol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Law. During police and prosecutor's investigation, he explained his religious belief and the fact that he did not want to evade national duty. He pointed out that the Constitution protected freedom of religion. During the hearing, he requested the Court to postpone the judgement until the Government of the State party adopt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His claim was rejected. He served his time in prison and describes the two years of both investigation and prison time as stressful and emotional.

Mr. Hui-Sung Gu's case

2.5 On 12 December 2005, Mr. Gu received a draft notice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dering him to be drafted into military service at the Choonchun military

camp. Mr. Gu refused to be drafted within the 3-day-prescribed period of time because of his religious beliefs. On 11 May 2006, the Inche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in-Mo Yeon's case

2.6 On an unspecified date, Mr. Yeon call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explain his standing as conscientious objector. He submitted all the documents requested, including a document proving that he was a Jehovah's Witness and a written statement explaining his religious beliefs. At the Court hearing, he informed the judge of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as long as he would be exempt from the compulsory two-week military training session. His claim was rejected. On 26 May 2006, the Court (unspecified name)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Il-Joo Lee's case

2.7 On 31 October 2005, Mr. Lee received a notice of draft for military service. He replied that he would not perform military service because of his religious beliefs. He was interrogated by the police and prosecutor and taken into custody from 16 May 2006. The Western Section of the Seoul District Court rejected his claim on the basis that due reason exempting from military service could only include compelling reasons such as health related. To Mr. Lee's argument that the Military Service Law violated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protect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the judge replied that such freedom is protected as long as it remains private and personal but not when it enters in conflict with other protected rights and obligations. The Court concluded that freedom of conscience was not an absolute right and could therefore be restricted. The Court added that the absence of any alternative to active military service was a measure which could not be considered disproportionate. On 26 April 2006, Mr. Lee was sentenced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In-Hwan Jo's case

2.8 Mr. Jo received a draft notice for military service on 22 September 2006. He wrote a statement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plaining his religious convictions. He was interrogated by the police and detained for 37 days. On 10 January 2007, the Jeonj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ung-Rak Kim's case

2.9 Mr. Kim received a draft notice for military service in February 2006. He notified his decision to be a conscientious objector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submitted the requested documents. He attended the Changwon District Court hearing as a free man but was eventually sentenced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ong-Wook Kim's case

2.10 Mr. Kim received a notice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in October 2006. Although he had declared himself a conscientious objector, the Court reproached him for not having given justifiable reasons for not reporting to military duty within 3 days upon receipt of the draft notice. On 17 January 2007, he was sentenced by the Suwon District Court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Dong-Hun Shin's case

2.11 Mr. Shin received a notice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18 September 2006 ordering him to enter the military camp of Yonghyun-Dong within 3 days. He objected to

CCPR/C/101/D/1642-1741/2007

military service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hich rejected his claim. He was arrested and detained from 16 November 2006. On 28 December 2006, he was sentenced to one and a half years of imprisonment by the Incheon District Court.

Mr. Ju-Gwan You's case

2.12 Mr. You received a draft notice for military service on 18 October 2006 but did not enter the military training camp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because of his religious beliefs. He was sentenced to one and a half years of imprisonment by the Jeonju District Court on 10 April 2007.

Mr. Jae-Hyung Jung's case

2.13 On 29 August 2006, Mr. Jung received a draft notice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11 October 2006, he informed the Suwon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 his refusal to enlist for military service due to his religious beliefs. He provided all the documents to justify his position. He was arrested and detained from 13 November 2006. On 21 Dec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Uok Heo's case

2.14 Mr. Heo received his enlistment notice on 6 April 2006. He notified hi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police investigation started on 9 June 2006 and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on 30 August 2006. He was not detained prior to being sentenced. On 10 November 2006, the Inche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ong-Keun Park's case

2.15 On 1 October 2006, Mr. Park received an enlistment notice for military service. He went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fice to submit his state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 He was summoned and investigated in April 2007. On 30 May 2007, the Inche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Un-Hyun Baek's case

2.16 Mr. Baek objected to military service enrolment for religious reasons after he received his draft notice on 12 September 2006. He was detained from 25 October 2006 while being investigated. The Chungj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on 30 November 2006.

Mr. Jung-Rok Lim's case

2.17 Mr. Lim received a draft notice of active military service on 8 August 2006 but he refused to enrol in the army because of his religious beliefs. During the trial, the prosecution demanded 3 years imprisonment. On 1 February 2007, the Daeg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n prison.

Mr. Myung-Ki Shin's case

2.18 Mr. Shin was called-up for military service on 27 January 2006, which he refused because of his religious beliefs. He later went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provide a written statement on his religious convictions. After a police investigation in March and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in May 2006, he was heard by the Court. On 22 June 2006,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ae-Ha Cha's case

2.19 On 2 October 2006, Mr. Cha received his enlistment notice. He filed a letter of conscientious objection along with a letter confirming his status in his Congregation and a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Congregation. He was investigated upon but the judge did not request him to be detained before the trial. During the Court hearing, the prosecutor requested 2 years of imprisonment for failing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28 March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u-Hyun Park's case

2.20 Mr. Park received a draft notice of enlistment on 3 July 2006. He provided his written statement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was investigated in September 2006. During the trial he mention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claim was rejected. On 20 October 2006,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Tae-Eung Kim's case

2.21 Mr. Kim received his enlistment notice on 26 December 2006. In Court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On 22 June 2007, the Daeg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an Seo's case

2.22 On 22 September 2006, Mr. Seo was notified of his enlistment into military service. He refused on the basis of his religious beliefs. He provided the necessary documents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n 11 January 2007, the Chang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Ho Cho's case

2.23 Mr. Cho received his draft notice of enlistment on 2 August 2006. He objected to it because of his religious beliefs. On 23 November 2006, the Chang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ung-Hoon Kim's case

2.24 On 8 June 2006, Mr. Kim received his draft enlistment notice. He provided the necessary documents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fully cooperated with the police and prosecutors. In Court,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voluntary alternative service. His claim was rejected. On 25 Octo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ae-Hun Lee's case

2.25 Mr. Lee was called-up for military service on 18 March 2007. He objected to it as a Jehovah's Witness. On 27 June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Hange Yoon's case

2.26 On 25 August 2006, Mr. Yoon received a draft notice of enlistment. He went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informed them of his conscientious objection. He was interrogated by the police and then detained at the Suwon Detention Centre, while waiting for his trial. On 15 Dec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CCPR/C/101/D/1642-1741/2007

Mr. Hwan-Ho Jung's case

2.27 On 31 July 2006, Mr. Jung received a draft notice of enlistment. He was questioned and detained pending his trial. On 22 Nov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Do-Hyun Kim's case

2.28 On 20 June 2006, Mr. Kim was called-up for military service. He refused and notified his position on 18 August 2006. In Court,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10 November 2006, the Ansan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Gang-Wook Kim's case

2.29 Mr. Kim received his draft notice of enlistment on 11 May 2006. He refused as a conscientious objector. On 8 Nov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Hun Kim's case

2.30 Mr. Kim received his draft notice from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n 14 December 2006. As he did not report to service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he was summoned by the police and investigated. He submitted a written statement on his religious beliefs. He was detained pending trial. At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20 March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Young-Won Lee's case

2.31 Mr. Lee received a draft notice of enlistment on 4 April 2006. He was detained before and during the trial. On 31 August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Tae-Soo Moon's case

2.32 Mr. Moon received a draft notice of enlistment on 10 May 2006. He refused to be drafted and explained his position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n 30 June 2006. He was arrested and detained pending trial. On 20 Octo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i-Hyun Jung's case

2.33 Mr. Jung received a draft notice of enlistment on 24 October 2006. He refused to be drafted and explained his position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e was detained pending trial. In Court,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30 January 2007, the Chang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Doo-On Kang's case

2.34 Mr. Kang was called-up for military service on 3 October 2006. He refused to bear arms and was therefore sentenced by the Ansan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on 17 April 2007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ung-Ryul Kang's case

2.35 Mr. Kang received his notice for enrolment on 28 August 2006. He refused to do the army because of his religious beliefs. On 23 January 2007, the Busa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Yong-Dae Kim's case

2.36 Mr. Kim was called-up for military service on 14 March 2006. He contact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inform them of his position as a conscience objector. On 8 August 2006, the Daeje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eung-Yob Lee's case

2.37 Mr. Lee received his notice of enlistment on 12 July 2006. He went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express his religious convictions. He was interrogated twice and imprisoned at the Suwon detention centre. On 1 Dec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ae-Won Seo's case

2.38 Mr. Seo received his notice of enlistment on 4 May 2006. Because of his convictions, he refused to bear arms. The prosecutor demanded two years of imprisonment. On 30 August 2006, the Guchang Branch of the Chang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Woo-Jin Choi's case

2.39 Mr. Choi received his notice of enlistment on 28 July 2006. He filed a letter of conscientious objection. On 7 December 2006, the Chang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ung-Jin Hwang's case

2.40 Mr. Hwang received a draft notice for military service on 21 April 2006. He refused to abide by the notice. He was arrested and detained. On 25 September 2006, the Busa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ung-Joong Jeon's case

2.41 Mr. Jeon received a draft notice for military service on 16 October 2006. He refused to be enrolled and was therefore arrested and detained from 4 December 2006, pending trial. On 7 February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Dae-Jin Kim's case

2.42 Mr. Kim received his draft notice of enlistment on 6 July 2006. He notifi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 his decision to be a conscientious objector. He was arrested and detained pending trial. On 3 Nov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Eun-Woo Kim's case

2.43 Mr. Kim received his enrolment notice on 16 June 2006. He refused as a conscientious objector. At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CCPR/C/101/D/1642-1741/2007

His request was rejected. On 4 May 2007, the Southern Section of the Seoul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i-Hoon Lim's case

2.44 Mr. Lim received a draft notice for military service on 11 July 2006. He refused as conscientious objector. On 3 November 2006, the Daeg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ung-Ho Lee's case

2.45 Mr. Lee was called-up for military service on 21 September 2006. Three days before the enlistment day, he call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inform them that he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On 12 January 2007, in ten minutes, the hearing took place and the Changwon District Court sentenced Mr. Lee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Dae-Jun Shin's case

2.46 Mr. Shin was called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23 September 2005. He explained his refusal to bear arms as a conscientious objector during the police and prosecutor's investigation. On 18 May 2006, the Daeg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he-Woong Park's case

2.47 Mr. Park received his draft notice of enrolment into the army on 16 May 2006. He objected for religious reasons. As an authorized herb doctor, he was exempted from active military service duty and able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working in a public health centre) as long as he accepted to go for a four-week basic military training session. Because of his religious beliefs he had to refuse. On 27 September 2006, the Gunsan Branch of the Jeonj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in-Moo Kwan's case

2.48 Mr. Kwan was called-up for military service on 8 May 2006. He filed his letter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ion. Despite explaining at large his religious convictions, the Busa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on 26 October 2006.

Mr. Ki-Joon Kim's case

2.49 Mr. Kim was called-up for military service on 26 May 2006. He refused for religious reasons. On 1 Nov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Young-Ki Lee's case

2.50 Mr. Lee received a draft notice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4 September 2006. He refused as conscientious objector. On 23 Nov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Kang-Hyeok-Kang Seo's case

2.51 Mr. Seo received his writ for active military service on 12 October 2006. He call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plaining his refusal to enrol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arrested, investigated and detained pending trial. At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18 January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Chong-Bin Wee's case

2.52 Mr. Wee received a draft notice of enrolment into the army on 10 April 2007. He notifi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 his status as a conscientious objector. He was arrested, interrogated and detained at the Suwon detention centre, pending trial. On 4 June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ang-Yang Oh's case

2.53 Mr. Oh received a draft notice for active military service on 10 May 2006. He refused for religious reasons. On 27 Octo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Hyun Young's case

2.54 Mr. Young was called-up for military service on 31 August 2006. He called the conscription office to inform them of his status as a conscientious objector. He was investigated and detained until he went to court. On 16 March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ae-Sung Lee's case

2.55 Mr. Lee received a draft notice for enrolment into the army on 21 August 2006. He refused for religious reasons. On 5 January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Bum-Hyuk Huh's case

2.56 Mr. Huh received a draft notice for active military service on 21 September 2006. He revealed his position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e was investigated, arrested and detained until he went to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19 January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Gang-Il Kim's case

2.57 Mr. Kim received a draft notice for military service on 13 June 2006. He refused to be enrolled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investigated upon, arrested and detained until he faced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20 October 2006, the Ansan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of imprisonment.

Mr. Jong-Hoon Kim's case

2.58 Mr. Kim received a draft notice for military service on 5 July 2006. He informed the conscription office about his status as conscientious objector. He was investigated, arrested and detained until he went to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28 Nov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Hyun-Woo Jung's case

2.59 Mr. Jung was called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22 March 2006. He refused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investigated, arrested and detained until he went to trial. He

CCPR/C/101/D/1642-1741/2007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11 July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un-Hee Ha's case

2.60 Mr. Ha was called-up for military service on 2 August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investigated, arrested and detained until he went to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1 December 2006, the Ansan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Min-Gu Kang's case

2.61 Mr. Kang received a draft notice of enlistment on 27 July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nd informed about his religious convictions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e was investigated, arrested and detained until he went to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15 Nov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Il-Gu Kang's case

2.62 Mr. Kang received a draft notice of enlistment in the beginning of November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to the Gyeonggi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t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3 April 2007, the Ansan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ang-Hyun Gwak's case

2.63 Mr. Gwak was called up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30 April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t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27 October 2006, the Ansan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un-Hang Choi's case

2.64 Mr. Choi was called-up for military service on 31 March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t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19 July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Chang-Hyo Lee's case

2.65 Mr. Lee received a writ for active military service on 10 October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nd call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inform them about his position. On 17 April 2007, the Daeg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Chan-Hee Kim's case

2.66 Mr. Kim received a writ for active military service on 4 February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investigated, arrested and detained until he went to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20 July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oan-Suk Kang's case

2.67 Mr. Kang received his enlistment notice on 23 August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t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22 Dec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ung-Hee Lee's case

2.68 Mr. Lee received his notice for enlistment on 13 March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On 13 July 2006, the Ansan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Gang-Min Lee's case

2.69 Mr. Lee received his enrolment writ on 27 July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On 23 November 2006, the Ansan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eul-Yong Park's case

2.70 Mr. Park received his writ for military service on 14 March 2006. He expressed his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e said he would be ready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On 10 Octo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Du-Hyun Jeon's case

2.71 Mr. Jeon was called-up for military service on 27 July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On 8 Dec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Chan-Wook Park's case

2.72 Mr. Park received his writ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14 April 2004. As he refused to enrol for religious reasons,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on 30 August 2006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eung-Ho Suk's case

2.73 Mr. Suk received his writ for military service on 26 June 2006. He expressed his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e was arrested and detained until he was tried. On 31 Octo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Hyun-Il Nam's case

2.74 Mr. Nam received his draft notice for military service on 28 July 2006. He refused for religious reasons. On 17 Nov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Hyun-Soo Hong's case

2.75 Mr. Hong received his writ for military service on 27 April 2006. He expressed his position as conscientious objector. He was arrested and detained until the trial started. On 18 Octo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CCPR/C/101/D/1642-1741/2007

Mr. Woong-Hee Lee's case

2.76 Mr. Lee received his writ for military service on 6 November 2006. He refused for religious reasons. On 25 April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Nam-Hee Lee

2.77 Mr. Lee received his writ for military service on 12 July 2006. He refused for religious reasons. On 18 January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Young-Guk Ju's case

2.78 Mr. Ju received his writ for military service on 22 July 2006. He refused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arrested and remained in detention until the trial. On 13 Dec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in-Young Kim's case

2.79 Mr. Kim received his writ for military service on 25 May 2006. He refused for religious reasons. On 29 Sept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Hyuk Park's case

2.80 Mr. Park received his writ for military service on 22 March 2006. He refused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arrested and detained pending the trial. He said he would be ready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29 August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Myung-Jae Kim's case

2.81 Mr. Kim received his writ for military service on 22 July 2006. He invoked his status as a conscientious objector. On 9 July 2007, the Ansan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Yoon-Soo Kim's case

2.82 Mr. Kim received his writ for military service on 5 April 2007. He refused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detained pending trial. He said he would be ready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On 25 July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i-Ho Yoon's case

2.83 Mr. Yoon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16 February 2007. He refused for religious reasons. He said he would be ready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On 22 June 2007, the Ansan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in-Hyung Park's case

2.84 Mr. Park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25 October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On 13 April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Hee-Hwan Park's case

2.85 Mr. Park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22 September 2006. He refused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detained pending trial. On 7 February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Gi-Uk Lee's case

2.86 Mr. Lee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15 September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On 15 February 2007, the Ansan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Ki-Up Kim's case

2.87 Mr. Kim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23 August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He provided all the necessary documents. He was arrested and detained pending trial. In Court,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His request was rejected. On 21 February 200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eng-Jae Ro's case

2.88 Mr. Ro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5 July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interrogated and later released. On 10 November 2006, the Daeg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Bo-Hyun Kim's case

2.89 Mr. Kim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17 October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detained pending trial. On 6 February 2007, the Chang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eung-Jin Lee's case

2.90 Mr. Lee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14 December 2005.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t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On 10 August 2006, the Daeg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Hoe-Min Kim's case

2.91 Mr. Kim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23 December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t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On 23 March 2007, the Chang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uk-Jin Kwon's case

2.92 Mr. Kwon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12 May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t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On 15 September 2006, the Daeg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Do-Hee Han's case

2.93 Mr. Han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4 July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arrested and detained pending trial. On 18

CCPR/C/101/D/1642-1741/2007

January 2007, the Daeje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Dae-Hee Bae's case

2.94 Mr. Bae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28 July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detained pending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On 15 December 2006,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Mu-Myoung Kang's case

2.95 Mr. Kang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10 May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nd submitted all relevant documents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e was detained pending trial. In Court,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On 8 September 2006, the Incheon Buche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Eun-Geol Cho's case

2.96 Mr. Cho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10 May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nd submitted all relevant documents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e was detained pending trial. On 5 September 2006, the Ansan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Woo-Young Park's case

2.97 Mr. Park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28 March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He was detained pending trial. In Court,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On 18 July 2006, the Busa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Jong-Woo Jeong's case

2.98 Mr. Jeong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19 May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nd submitted all relevant documents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e was detained pending trial. On 25 August 2006, the Busa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Chang-Win Park's case

2.99 Mr. Park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4 August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On 22 January 2007, the Busa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Myung-Woong Park's case

2.100 Mr. Park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an unspecified date.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t trial,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On 31 October 2006, the Sooncheon Branch of the Gwangj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Su-Heon Choi's case

2.101 Mr. Choi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in February 2007.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nd submitted all relevant documents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n 11 July 2007, the Inche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Won-Kyung Lee's case

2.102 Mr. Lee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on an unspecified date.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He submitted a written statement justifying his position. On 8 March 2007, the Daejeon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Mr. Kwang-Yoo Kim's case

2.103 Mr. Kim received his writ of enlistment for military service in the summer of 2006. He objected to it for religious reasons and submitted all relevant documents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e was detained pending trial. In Court, he expressed his readiness t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On 20 December 2006, the Goyang Branch of Uijeongbu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and a half years imprisonment.

The complaint

3.1 The authors complain that the absence in the State party of 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under pain of criminal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breaches their rights under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3.2 The authors refer to the Committee's Views in Communication nos. 1321/2004 and 1322/2004,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 November 2006, in which the Committee found a violation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by the State party, on the basis of similar facts as those in the present communications and in which the State party was obliged to provide the authors with an effective remedy.

State party's observations on admissibility and merits

4.1 By submission of 14 November 2008, the State party responds on the merits of the communications, referring to the Committee's Views in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³ and requesting the Committee to reconsider this decision taking into account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State party.

4.2 The State party focuses on certain aspects of the Committee's earlier decision. As to the Committee's argument therein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which have retaine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ave introduced alternatives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the State party points out that the legal systems of Germany and Taiwan, countries which have introduced alternative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State party. The State party remains divided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whereas there has been no war in Germany since 1945 and reunification was achieved in 1990.

4.3 Taiwan never waged war against China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Taiwanese government in 1955. The Korean War was fought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nd lasted for three years and one month from 25 June 1950 to July 1953, when a cease-fire agreement was finally signed. It left one million dead from the south and more than 10 million Koreans wer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at the end of the war.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its painful history of war constitutes one of the reasons why its government

³ Supra.

CCPR/C/101/D/1642-1741/2007

places such emphasis on national security as the most significant priority in its national policy agenda.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a cease-fire agreement is still effective in the State party, which distinguishes it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Taiwan. This agreement has not yet been superseded by a new legal framework such as a declaration ending the war or a peace agreement to ensure non-aggression and peace, despite the continued efforts to this end. In the State party's view, the security environment is not comparable to that of either Germany or Taiwan, as it is bordered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hich spans 155 miles. There have been numerous clash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vessels, which occurred on 15 June 1999 and 19 June 2002. Thus, this demonstrates that the outbreak of war remains a possibility even in the midst of a relatively reconciliatory environ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reaffirms the State party's need to build military means for the reasons of defense.

4.4 As to the Committee's argum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failed to show what special disadvantage would be involved for it if the rights of the authors under article 18 were fully respected",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or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 is closely linked to national security, which is the very prerequisite for national survival and the liberty of the people. It fears that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would jeopardize national security. It highlights that 70% of the Korean Peninsula is mountainous, making it all the more necessary to be equipped with enough ground forces to face guerrilla warfare. However, the number of soldiers in the State party remains at around 680,000, only 58% of that of the DPRK, which amounts to about 1,170,000, and between 2000 and 2005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number of male soldiers between 15 and 25 years.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and makes it even more difficult to accept cases of exception from conscription.

4.5 According to the State party, there have always been those who are intent on "evading" conscription due to the relatively challenging conditions often required in the military, or concern over the effect such an interruption will have on one's academic or professional career. Thus, it is even more necessary to maintain its current system of a no-exception policy in mandatory military service to ensure sufficient ground forces. It submits that if it were to accept claims of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in the absence of public consensus on the matter, it would be impeded from securing sufficient military manpower required for national security by weakening the public's trust in the fairness of the system, leading the public to question its necessity and legitimacy. In addition, any exceptions based on religious belief would have to apply to people of all religious faiths and, given that persons of religious faith account for a significant part of the military forces, concerns about the proliferation of requests for exemptions are not groundless. The situation would be further aggravated if the State party were to accept exemptions based on personal conscience alone rather than on a religious basis. Thus, for the State party,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s should be preceded by a series of measures: stable and sufficient provisions of military manpower; equality between people of different religions as well as with those without; in-depth studies on clear and specific criteria for recognition of an exemption and consensus on the issue among the general public.

4.6 As to the Committee's argument that, "respect on the part of the State for conscientious beliefs and manifestations thereof is itself an important factor in ensuring cohesive and stable pluralism in society", the State party is of the view that as a unique security environment prevails, fair and faithful implementation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is a determining factor to secure social cohesion. Respect for conscientious beliefs and its manifestations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enforc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 alone. It is sustainable only if general agreement on this issue has been achieved among society. Public opinion polls conducted in July 2005 and in September 2006 show

that 72.3% and 60.5% respectively expressed opposition to the recognition of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State party's view, the introduction of such an arrangement at a premature stage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without public consensus, would intensify social tensions rather than contribute to social cohesion.

4.7 The State party submits that it is a very difficult task to set up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practice, guaranteeing equality and fairness between those who perform mandatory military service and those who perform alternative service. The majority of the soldiers of the State party perform their duties under difficult conditions and some are involved in life-threatening situations. They face the risk of jeopardizing their lives while performing their duty of defending the country. Indeed, six people died and nineteen were wounded in the clash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naval vessels near Yeonpyeong-do in the Yellow Sea on 19 June 2002. Thus, it is almost impossible to ensure equality of burden with those fulfilling military service and those performing alternative service. Assuming that this disparity will continue to exist, it is imperative to gain the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the general public before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4.8 The State party regrets that upon its accession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on 10 April 1990, the Committee had not provided a clear position on whether conscientious objection fell within the ambit of article 18. It was only on 30 July 1993, in its General Comment 22, that the Committee announced its position that failure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constituted a breach of this provision. It refers to the decisions of both its Supreme and Constitutional Courts to the effect that the failure to introduce a system at the present time cannot be interpreted as a breach of the Covenant, and that the requisite articl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is constitutional.

4.9 The State party informs the Committee of that fact that from April 2006 to April 2007, the Ministry of Defense set up a "Joint Committe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research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is Committee conducted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revising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cluding prospects for the future demand and supply of military personnel, the statements of those who refused military service, the opinions of experts in this field and relevant cases of foreign countries.⁴ It is now conducting research with the aim of following the trend of public opinion from August to December 2008.

4.10 In addition, in September 2007, the State party announced its plan to introduce a system assigning social services to those who refuse conscription due to their religious beliefs once there is a "public consensus" on this issue. The State party informs the Committee that once there is such consensu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on public opinion and positions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institutions, then it will consider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conclusion, it requests the Committee to reconsider its previous view on this matter in light of the arguments presented herein.

Authors' comments

5.1 In their comments dated 23 February 2009, the authors challenge the State party's submission. They point out the identical nature of their claims to those of the authors in communications 1321-1322/2004, submitted by Mr. Yoon Yeo-bum and Mr. Choi Myung-jin⁵, in which the Committee expressed its view that the State party had violated article 18,

⁴ The State party has not provided any indication of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⁵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 no. 1321/2004 and 1322/2004.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 November 2006.

CCPR/C/101/D/1642-1741/2007

paragraph 1,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authors consider therefore that in the present case, their rights under article 18 have also been violated. The authors deplore the State party's failure to implement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devis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ferred to in State party's submissions to both present communications as well as in previous ones⁶.

5.2 With respect to the State party's alleged necessity to preserve national security, which would be hampered by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he authors reply that Stat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Norway, Denmark and Russia adopted laws recognizing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during war time.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se laws weakened these States' national security. Another example is the State of Israel, which since 1948, has been involved in military confrontations that have resulted in a much higher number of casualties than those the Republic of Korea has experienced over the last fifty years. The State of Israel nevertheless exempts conscientious objectors from military service. The authors conclude that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does not compromise a country's national security.

5.3 The authors further contend that the current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party amounts to two percent of those enlisted for military service each year. The authors do not consider this number high enough to have any type of influence on the ability for the State party to defend itself. They further note that these conscientious objectors are not serving the army but serving time in prison, thus suggesting that the State party's refusal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ors and to allow alternative service has not contributed to improve or maintain its national security. As for the State party's fear that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would lead to an increase of requests from Buddhists, Catholics, and others from the Christian faith, the authors reply that there is no record in any country which has implemented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of a substantial increase coming from the ranks of Buddhists, Catholics and others from the Christian faith.

5.4 With regard to State party's argument of the alleged necessity to preserve social cohesion, the authors reply by quoting a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ing in 1943 where it has considered that fundamental freedoms do not depend on the outcome of elections⁷. The authors argue that public opinion cannot excuse a breach of the Covenant or of its own Constitution. In the present case, the State party opted to include in its Constitutio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freedom of religion. Thus, domestic law, which includes the Covenant, protects such rights. This law of the land therefore protects the authors'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ese rights may not be subject to popular vote. The authors further contend that reliance on public polls can be misleading. The State party refers to two polls dated 2005 and 2006 where 73.3% and 60.5% respectively expressed opposition to the recognition of alternative service arrangement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Yet, on 18 September 2007, when the Ministry of Defence announced that it had decided to introduce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t made reference to another poll which showed that 50.2% of the population consented to introducing an alternative form of national service. The authors quote two other polls showing the same tendency.

5.5 The authors conclude that such contradictions show that fundamental rights cannot be subject to election reasons and that the State party has chosen to protect these freedoms in its Constitution and the Covenant. As for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when it acceded

⁶ Ibid, paragraph 6.5.

⁷ US Supreme Court,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et al. v. Barnette et al.*, 319 U.S. 624, 639 (1943).

to the Covenant, the Committee had not yet issued its General Comment No 22 broadening the scope of article 18 to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e authors reply that subsequent to the State party's accession to the Covenant, it became a member of the then UN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adopted resolutions on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 1993, 1995, 1998, 2000, 2002 and 2004. The State party did not object to any of them. The authors therefore request the Committee to consider that article 18, paragraph 1 has been violated in their case.

Issues and proceedings before the Committee

Consideration of admissibility

6.1 Before considering any claims contained in a communication, the Human Rights Committee mus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3 of its rules of procedure, decide whether or not it is admissibl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6.2 The Committee notes, as required by article 5, paragraph 2 (a) of the Optional Protocol, that the same matter is not being examined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procedure of investigation or settlement.

6.3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uthors have not appealed against the judgement of the respective District Courts on the basis that any appeal would have been totally ineffective. The authors contend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15 July 2004,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26 August 2004, decided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must serve in the army or face prison terms; and since the highest courts of Korea made a final decision on this issue, any further appeal would be totally ineffective. Taking into account the authors' arguments and in the absence of any objection by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authors have exhausted domestic remed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2 (b) of the Optional Protocol.

6.4 The Committee further considers that the authors have sufficiently substantiated their allegations and therefore declares the claims under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admissible and proceeds to their consideration on the merits.

Consideration of the merits

7.1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s considered the present communication in the light of all the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Optional Protocol.

7.2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claim that their rights under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have been violated, due to the absence in the State party of 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s a result of which their failur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led them to criminal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The Committee notes that in the present cases the State party reiterates arguments advanced in response to the earlier communications⁸ before the Committee, notably on the issues of national security, equality between military and alternative service, and lack of a national consensus on the matter.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it has already examined these arguments in its earlier Views⁹ and thus finds no reason to depart from its earlier position.

⁸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 No. 1321/2004 and 1322/2004,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 November 2006; *Eu-min Ju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s No. 1593-1603/2007,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0 April 2010.

⁹ *Ibid.*

CCPR/C/101/D/1642-1741/2007

7.3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22 where it has considered that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the freedoms enshrined in article 18, paragraph 1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this provision cannot be derogated from, even in time of public emergency, as stated in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Covenant. Although the Covenant does not explicitly refer to a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he Committee believes that such a right derives from article 18, inasmuch as the obligation to be involved in the use of lethal force may seriously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heres in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t entitles any individual to an exemption from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f this cannot be reconciled with that individual's religion or beliefs. The right must not be impaired by coercion. A State may, if it wishes, compel the objector to undertake a civili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outside the military sphere and not under military command. The alternative service must not be of a punitive nature. It must be a real service to the community and compatible with respect for human rights.

7.4 In the present cases,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authors' refusal to be drafted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derives from their religious beliefs which, it is uncontested, were genuinely held and that the authors' subsequent conviction and sentence amounted to an infringement of their freedom of conscience, in breach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Repression of the refusal to be drafted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exercised against persons whose conscience or religion prohibit the use of arms, is incompatible with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8. The Human Rights Committee, acting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ncludes that the facts before the Committee reveal, in respect of each author, viol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9.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paragraph 3 (a),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provide the authors with an effective remedy, including expunging their criminal records and providing them with adequate compensation.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avoid similar violations of the Covenant in the future, which includes the adoption of legislative measures guaranteeing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10. Bearing in mind that, by becoming a party to the Optional Protocol, the State party has recognized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determine whether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venant or not and that,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has undertaken to ensur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ovenant, and to provide an effective and enforceable remedy in case a violation has been established, the Committee wishes to receive from the State party, within 180 days,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the Committee's Views. The State party is also requested to publish the Committee's Views.

[Adopted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English text being the original version. Subsequently to be issued also in Arabic, Chinese and Russian as part of the Committee's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Annex 1

Case No.	Complainant
1. 1642/2007	JEONG, Min-Kyu
2. 1643/2007	GU, Hui-sung
3. 1644/2007	YEON, Jin-mo
4. 1645/2007	LEE, Il-joo
5. 1646/2007	JO, In-hwan
6. 1647/2007	KIM, Jung-rak
7. 1648/2007	KIM, Jong-wook
8. 1649/2007	SHIN, Dong-hun
9. 1650/2007	YOU, Ju-gwan
10. 1651/2007	JUNG, Jae-hyung
11. 1652/2007	HEO, Uok
12. 1653/2007	PARK, Jong-kpeun
13. 1654/2007	BAEK, Un-hyun
14. 1655/2007	LIM, Jung-rok
15. 1656/2007	SHIN, Myung-ki
16. 1657/2007	CHA, Jae-ha
17. 1658/2007	PARK, Ju-hyun
18. 1659/2007	KIM, Tae-eung
19. 1660/2007	SEO, San
20. 1661/2007	CHO, Ho
21. 1662/2007	KIM, Jung-hoon
22. 1663/2007	LEE, Jae-hun
23. 1664/2007	YOON, Hangla
24. 1665/2007	JUNG, Hwan-ho
25. 1666/2007	KIM, Do-hyun
26. 1667/2007	KIM, Gang-wook
27. 1668/2007	KIM, Hun
28. 1669/2007	LEE, Young-won
29. 1670/2007	MOON, Tae-soo
30. 1671/2007	JUNG, Ji-hyun

Case No.	Complainant
31. 1672/2007	KANG, Doo-on
32. 1673/2007	KANG, Sung-ryul
33. 1674/2007	KIM, Yong-dae
34. 1675/2007	LEE, Seung-yob
35. 1676/2007	SEO, Jae-won
36. 1677/2007	CHOI, Woo-jin
37. 1678/2007	HWANG, Sung-jin
38. 1679/2007	JEON, Sung-joong
39. 1680/2007	KIM, Dae-jin
40. 1681/2007	KIM, Eun-woo
41. 1682/2007	LIM, Ji-hoon
42. 1683/2007	LEE, Sung-ho
43. 1684/2007	SHIN, Dae-jun
44. 1685/2007	PARK, She-woong
45. 1686/2007	KWAN, Jin-moo
46. 1687/2007	KIM, Ki-joon
47. 1688/2007	LEE, Young-ki
48. 1689/2007	SEO, Kang-hyeok
49. 1690/2007	WEE, Chong-bin
50. 1691/2007	Oh, Sang-yong
51. 1692/2007	YOUNG, Jo-hyun
52. 1693/2007	LEE, Jae-sung
53. 1694/2007	HUH, Bum-hyuk
54. 1695/2007	KIM, Gang-II
55. 1696/2007	KIM, Jong-Hoon
56. 1697/2007	JUNG, Hyun-woo
57. 1698/2007	HA, Jun-hee
58. 1699/2007	KANG, Min-gu
59. 1700/2007	KANG, Il-gu
60. 1701/2007	GWAK, Sang-hyun

CCPR/C/HU/D/1642-1741/2007

Case No.	Complainant
61. 1702/2007	CHOI, Sun-hong
62. 1703/2007	LEE, Chang-hyo
63. 1704/2007	KIM, Chan-hee
64. 1705/2007	KANG, Joon-suk
65. 1706/2007	LEE, Sung-hee
66. 1707/2007	LEE, Gang-min
67. 1708/2007	PARK, Seul-yong
68. 1709/2007	JEON, Du-hyun
69. 1710/2007	PARK, Chan-wook
70. 1711/2007	SUK, Seung-ho
71. 1712/2007	NAM, Hyun-Il
72. 1713/2007	HONG, Hyun-soo
73. 1714/2007	LEE, Woong-hee
74. 1715/2007	LEE, Nam-hee
75. 1716/2007	JU, Young-guk
76. 1717/2007	KIM, Jin-young
77. 1718/2007	PARK, Hyuk
78. 1719/2007	KIM, Myung-jac
79. 1720/2007	KIM, Yoon-soo
80. 1721/2007	YOON, Ji-ho

Case No.	Complainant
81. 1722/2007	PARK, Jin-hyung
82. 1723/2007	PARK, Hee-hwan
83. 1724/2007	LEE, Gi-uk
84. 1725/2007	KIM, Ki-up
85. 1726/2007	RO, Seng-jac
86. 1727/2007	KIM, Bo-hyun
87. 1728/2007	LEE, Seung-jin
88. 1729/2007	KIM, Hoe-min
89. 1730/2007	KWON, Suk-jin
90. 1731/2007	HAN, Do-hee
91. 1732/2007	BAE, Dae-hee
92. 1733/2007	KANG, Mu-myung
93. 1734/2007	CHO, Eun-geol
94. 1735/2007	PARK, Woo-young
95. 1736/2007	JEONG, Jong-woo
96. 1737/2007	PARK, Chang-win
97. 1738/2007	PARK, Myung-woong
98. 1739/2007	CHOI, Su-heon
99. 1740/2007	LEE, Won-kyung
100. 1741/2007	KIM, Kwang-yoo

CCPR/C/101/D/1642-1741/2007

Appendix

**Individual opinion by Committee members Mr. Yuji Iwasawa,
Mr. Gerald L. Neuman, and Mr. Michael O'Flaherty (concurring)**

We concur with the majority of the Committee in finding that the facts before the Committee reveal, in respect of each author, viol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in line with its previous jurisprudence in similar cases against the State party. In this case, however, the majority of the Committee adopted reasoning different from the one it used in its previous jurisprudence. We believe that the Committee should use the same reasoning it used before. Accordingly, paragraphs 7.2 to 7.4 of the Views of the Committee should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paragraphs:

7.2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claim that their rights under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have been violated, due to the absence in the State party of 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s result of which their failur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resulted in their criminal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jurisprudence, in similar cases against the State party, that the authors' conviction and sentence amounted to a restriction on their ability to manifest their religion or belief and that, in those cases, the State party had not demonstrated that the restriction in question was necessar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8, paragraph 3.¹

7.3 The Committee notes that in the present cases the State party reiterates arguments advanced in response to the earlier communications² before the Committee, notably on the issues of national security, equality between military and alternative service, and lack of a national consensus on the matter.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it has already examined these arguments in its earlier Views³ and thus finds no reason to depart from its earlier position.

7.4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uthors' refusal to be drafted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as a direct expression of their religious beliefs which, it is uncontested, were genuinely held and that the authors' subsequent conviction and sentence amounted to an infringement of their freedom of conscience and a restriction on their ability to manifest their religion or belief. The Committee finds that as the State party has not demonstrated that in the present cases the restrictions in question were necessar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8, paragraph 3, it has violated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Signed]: Yuji Iwasawa

[Signed]: Gerald L. Neuman

[Signed]: Michael O'Flaherty.

[Done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the English text being the original version. Subsequently to be issued also in Arabic, Chinese and Russian as part of the Committee's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¹ *Yeo-Bun Yoon and Myung-Jin Choi v. The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 No. 1321/2004 and 1322/2004,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 November 2006; *Eu-Min Jung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 No. 1593-1603/2010,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23 March 2010.

² Ibid.

³ Ibid.

GE.

Please recycle 

※ 관보 제17556호(2011. 7.22.)일자 법원란에 게재된(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취소합니다.